

# “어르신! 돈 잘 쓰는 법 아세요?”

## 소비자보호원 법우회 매주 2회 노인 위한 소비자학교 열어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안 살래 안 살 수 없게 만들죠. 수십만 원짜리 물건을 열에 일곱은 사게 됩니다. 어르신들! 아예 그런 곳에 안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거저 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경제 강좌, 소비자교실’ 강의 첫 날, 한국 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노영화, 이하 소비원법우회)가 정보수집 취약 계층인 노인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사기 상술피해

다”고 말했다.

소비원 법우회는 왜 이런 강화를 기획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보호원이란 직장 특성을 백분 살린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또 한 가지, 소비자문제 전문가로서의 법우회 회원들의 대의 활동력 제고다. 사실 지난해 9월에도 소비자교실을 열었지만, 단발성 행사로 끝났다. 하지만 이번 강좌는 진행방식부터 다르다. 일방적인 강의가

로 노출되다시피 했다”며 “피해 사례 유형 소개는 물론, 대처 방법 등 예방차원에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원 법우회는 이를 위해 앞으로 ‘소비자교실’을 연간 행사로 정례화 하는 한편, 소비원 내 노인전용 소비자 상담전화 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노인들의 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소비 합리화 캠페인’을 벌인다. ‘노인 사기성 거래 실태 조사’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올 하반기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선 보호자 동의, 후 계약’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의는 계속된다. 11월 19일 종강까지 매주 둘째·넷째 주 수요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소비자보호 일반, 공산품·식의약품·신용카드·보험 등 피해 사례별 유형소개 및 대처 방법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로 진행된다. (02)739-9503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어르신! 귀한 돈 잘 쓰는 법 아세요?” 지난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함께 마련한 ‘소비자교실’. 2백여 노인들이 전효중 소비원 법우회 교문의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고영매 기자

## 다단계·무료 효도관광 등 사기상술 예방 “이젠 속지 않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대상은 6~70대 노인, 강좌는 2개월 과정에 총 4회 실시. 웬만한 대학 사회교육원 강좌 프로그램 수준을 맞춘다.

반응이 좋았다. 새벽같이 부천에서 왔다는 조혜영(76)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얻어 쓰고 있는 형편이어서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돈 쓸 때 속지 않고 잘 쓸 수 있을 것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진행된다. 커리큘럼도 이런 형식에 맞게 피해 사례유형과 예방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강의를 나선 소비원 법우회 전효중(49·생활경제국장) 교문은 “인터넷 세대가 불리는 젊은 세대에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시대에, 어르신들은 다단계 판매, 무료 효도관광 등 각종 사기 상술에 무방비



“삼가 고인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한국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선) 회원 220여명은 9일 대구시민회관에 마련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대구=박원구 기자

## 절 탐방·불교문화 가장 큰 관심

### 조계종 포교원, ‘직장불교’ 기사 만족도 조사

“일터 불심은 불교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경전 한글판이, 스님 법문 등의 읽을거리를 선호한다.”

조계종 포교원이 10일 월간 <직장불교> 구독자 기사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직능불자회는 사찰 탐방 등 불교문화 분야(29.8%)를 기획 또는 특집기사로 다뤄주기를 희망했으며, 그밖에 신행·봉사 등 체험 소개(21.3%),

다른 직장·직능불자회 소식(12.8%), 건강 등 상식(6.4%) 등으로 조사됐다.

또 즐겨 읽는 기사로는 경전 한글판이(36.2%)를 꼽았으며, 스님 법문(23.4%), 산사 체험(14.9%) 등도 많이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2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우편 조사 형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47명이 조사에 응했다.

김철우 기자

### 단체장

## 경남 창녕에 첫 의료인불자회

### 22일 창립법회, 초대회장 강경구 씨

경남 창녕에 첫 불자의료회가 창립된다.

창녕 서울병원 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는 지난 2월 19일 인근 식당에서 창립준비총회를 갖고, 이달 22~23일 이틀간 경북 성주 도솔암에서 창립법회 겸 순회 진료봉사 실시를 결의했다.

8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회장에 강경구 내과 부장을, 부회장에 하수양 간호과장을 각각 선출했다. 또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 등 총 10명으로 의료봉사단을 구성, 내과와 한방과 등 2개과 진료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철우 기자



**대전 구암사서 임원회의**  
김중경 전국경찰불교회장은 23일 대전 구암사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전국 경찰불교회 현황 파악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대구 지하철’ 유가족돕기**  
이용일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의장은 3월 25일까지 대구지하철 화재 유가족 돕기 모금 활동을 벌인다. (02)973-0989



**‘초발심자경문’ 교리 강좌**  
박우락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장은 18일 서울 기원사 대웅전에서 주지 상현 스님으로부터 <초발심자경문> 교리 강좌 법문을 들었다.



**보림사 성지순례·산행**  
오길수 광주불교신학회장은 23일 전남 장흥 보림사와 화순 운주사로 성지순례 및 산행을 떠났다. (06)2514-6996

## 우리불자회는요

### 영등포교도소 직원불심회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옥 문 앞에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서원하신 지장보살님, 우리 불심회는 ‘지장보살 닦기’를 발원해 왔습니다. 한 때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망을 쓴 재소자들, 이들이 흘리는 참회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과 평생 함께 가야 할 우리 불자회의 도반들입니다. 불법의 테두리 속에서 살기를, 우리는 이들과 함께 17년째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영등포교도소 직원불심회입니다. 창립은 지난 1986년 몇몇 뜻있는 직원들로 소박하게 출발했습니다. 사무, 보안, 야근 부서 등 상이한 근무 환경과 여건 등으로 한데 모여 법회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정·교화업무, 그 자체가 부처님

어려움도 적잖았습니다. 경전 공부와 독송이 어렵고 낯선데다가 근무 시간이 맞지 않아 제대로 법회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체계적인 불교기초를 공부할 수 없었던 것도 큰 문제였지요.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재소자 불자들에게 전해줄 불서 구입비조차 없어 안타까웠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영등포교도소 불교종교지원인인 조계사 지홍스님, 법운포교원 법운스님, 강남 불은사, 신촌 봉원사, 천태종 관문사 등등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불심회가 이만큼 활동할 수 있게 한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불심회는 신세대 군인인 경비교도대 불심동호회를 적극 교정·교화업무, 그 자체가 부처님

### 참회의 눈물 재소자들 우리불자회 도반

### 교정공무원 신행단체 자리매김에 주력



영등포교도소 직원불심회 회원들이 지난해 9월 전남 백양사에서 열린 전국 불자교정인연합회 수련회에서 불자교정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 믿기에 ‘재소자 상담’을 법회라 여겼습니다. 불우한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고통을 들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 우리 불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식구는 불과 10명이었습니다. 회원은 적었지만, 차근차근 신행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 모두가 ‘1회원 1불자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교도소 내 민원봉사 등을 통해 교정공무원 불자로서 대사회적 활동력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 불심회는 자비심을 한없이 베풀 수 있는 불자이기를 서원합니다. 불우 재소자와 고아, 독거노인들에게 언제나 밝은 내일을 보여주세요. 덕분에 이제는 80여명의 대 식구로 회원들이 불었지요.

■강정석 총무

## 실크로드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구법의 여정입니다. 구법의 여정에는 올바른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 1의 불자 여행사가 되겠습니다.

### 중국불교4대명산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5일 760,000원  
출발일: 4월 9일, 17일, 24일, 5월 15일
- 문수도량 오대산 6일 980,000원  
출발일: 5월 9일, 16일, 23일, 30일
- 지장도량 구화산 5일 870,000원  
출발일: 4월 18일, 25일, 5월 9일, 16일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880,000원  
출발일: 4월 24일, 5월 15일

### 중국 서안·장가계

- 5일 890,000원 ————— 출발일: 5월 12일

### 티베트 성지순례

- 티베트 수미산순례 23일 3,790,000원  
출발일: 6월 3일
- 티베트 네팔순례 11일 2,390,000원  
출발일: 5월 17일, 6월 3일

### 스리랑카 성지순례

- 6일 1,490,000원 ————— 출발일: 4월 16일

### 캄보디아 앙코르왓·태국 성지순례

- 6일 849,000원 ————— 출발일: 4월 18일, 25일

※ 환율변동에 따라 다소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예약 및 문의 (02)720-9600

##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제매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 오가피 수신택사토종 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제매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였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택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 (02) 447-9114